

시조에 나타난 가을의 성격과 정서표현

김상진*

〈차 례〉

- I. 시작하는 말
- II. 시조와 문학, 그리고 가을
- III. 정서표현의 세 국면
 - 1. 興으로 분출하기
 - 2. 情恨으로 응축하기
 - 3. 無心으로 승화하기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시조에서 가을을 어떻게 노래하고, 또 정서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인간과 자연은 긴밀한 함수관계에 놓인다. 더욱이 농경사회에서는 그 친연성이 좀 더 강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춘하추동의 四季를 노래하는 四時歌가 있어왔다. 본고에서는 사계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을에 주목하였다. 그것은 가을이 지닌 특성으로 말미암는다. 즉 가을은 일 년 중에 가장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임과 동시에, 만물이 스러져가는 쇠락의 계절이기도 하다.

본고에서 논의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가을이 지니는 성격에 관한 것으로, 시조를 비롯한 동서고금의 문학에서 가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 결과 문학에서의 가을은 대략 ‘결실의 계절과 ‘쇠락의 계절’의 상반되는 모습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삼은 것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가을을 시조에서 어떻게 정서적으로 반응하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구체

* 한양대학교

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시조에 나타난 가을의 정서적 표현은 세 가지로 범주화 된다. 분출과 응축, 그리고 승화가 그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각각 興, 情恨, 無心의 대표적인 美感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항목을 본고에서는 ‘흥으로 분출하기’ ‘정한으로 응축하기’ ‘무심으로 승화하기’로 명명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로써 시조에서 ‘가을’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그에 따라 정서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핵심어 : 가을, 四時歌, 결실, 쇠락, 분출, 응축, 승화, 흥, 정한, 무심

I. 시작하는 말

인간의 감정은 날씨에 따라 감정이 변화되기도 한다. 날씨와 인간 감정의 함수관계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일조량이 인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욱이 농경사회에서는 날씨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지대하다. 날씨에 따른 감정변화가 인간의 心身과 관계가 있다면 농경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삶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노래하는 문학에서도 날씨, 즉 계절은 작품의 중요한 테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四時歌’이다.¹⁾ 사시가란 四時의 순환에 따라 촉발되는 인간의 감정을 노래한 작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시가는 단순히 계절의 순환을 나타내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서 인간의 本性

1) 月令體나 歲時歌謠 또한 계절을 노래한다. 그러나 사시가가 시조, 가사, 한시 등의 장르에서 발전하며 주로 사대부계층이 향유했던 것과는 달리, 이들은 민요에서 발전하며 서민계층이 주로 향유하게 된다(김신중, 「한국 사시가의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1992, 9~14쪽).

을 나타낸다는 데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朱子에 따르면 元亨利貞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仁義禮智가 되고 계절에 나타날 때는 春夏秋冬이 된다고 하여 이들의 연관관계를 설명한다.²⁾ 이처럼 인간에게 있는 四德과 계절서 있는 四季의 근원은 서로 같은 것으로서 계절을 노래한다는 것은 다른 한 편으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문학 작품에서 대표적인 사시가는 ‘사시가계 연시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³⁾ 사시가계 연시조란 사시의 순환을 유기적 구조물인 연시조의 형식에 얹어 순차적으로 노래한 일련의 작품군을 일컫는다. 古佛 孟思誠(1360~1438)의 <江湖四時歌>로부터 비롯된 사시가계 연시조는 黃禧(1363~1452)의 <四時歌>가 그 뒤를 잇고 이후, 辛啓榮(1577~1669)의 <田園四時歌>, 尹善道(1587~1671)의 <漁父四時詞> 등과 같이 제목에서부터 ‘四時’를 표방하고 있는 작품들은 물론이고, 李珣(1536~1884)의 <高山九曲歌>라든지 李徽逸(1619~1672)의 <田家八曲>, 魏伯珪(1727~1798)의 <農歌九章> 등은 제목에는 사시란 용어가 등장하지 않지

2) 『周易本義』권9, <周易文言傳> : 元이란 生物之始 天地之德으로, 이보다 먼저인 것은 없다. 그러므로 계절에 있어서는 봄이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仁이 되며, 그 위에 모든 善의 근원이 된다. 亨이란 生物之通으로 만물이 이에 이르러 기쁘고도 아름답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므로 時節에 있어서는 여름이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禮가 되나 모든 아름다움이 하나로 된 것이다. 利란 生物之遂로 만물이 각각 그 마땅함을 얻어 서로 방해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時節에 있어서는 가을이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義가 된다. 그 分의 조화를 얻었음이라. 貞이란 生物之成으로 實理가 각각 충족된 것이다. 그러므로 時節에 있어서는 겨울이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智가 된다 (元者 生物之始 天地之德 莫先於此 故於時爲春 於人則爲仁 而衆善之長也. 亨者 生物之通 物至於此 莫不嘉美 故於時爲夏 於人則爲禮 而衆美之會也. 利者 生物之遂 物各得宜 不相妨害 故於時爲秋 於人則爲義 而得其分之和 貞者 生物之成 實理具備 隨在各足 故於時爲冬 於人則爲智)

3) 사시의 순환을 노래한 다수의 연시조 작품이 전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사시’는 연시조로서 익숙하지만, 그 연원은 중국의 漢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東晉 때의 여성인 子夜가 부른 <子夜歌>를 본따서 부른 <子夜四時歌>가 그것으로, 晉·宋·齊 등의 여러나라의 시인과 唐나라의 李白도 같은 제목의 시를 지었다 (김영철외, 『한국 시가의 재조명』, 형설출판사, 1988, 463쪽) 우리나라에서는 『東文選』에 수록되어 있는 李奎報(1168~1231)의 <四時歌>가 최초의 작품이다. 한시에서부터 시작된 사시가는 조선조에 이르러 시조와 가사로 이어지며 발전하게 되었다.

만 실제로는 사시의 순환 질서에 따라 작품이 구성됨으로써 이들 또한 사시가계 연시조에 포함된다.⁴⁾ 이처럼 우리 문학에서 ‘사시’는 인간의 본성을 표현하는 것임과 동시에, 사회문화적인 여건으로 볼 때도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⁵⁾

II. 시조와 문학, 그리고 가을

우리나라는 네 계절 가운데 특히 가을에 대한 감성이 남달랐다. 가을이란 절기상으로는 입추에서 입동 전까지, 천문학상으로는 추분부터 동지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⁶⁾ 이러한 가을은 독서의 계절, 思索의 계절⁷⁾ 등과 같은 다양한 수식어가 붙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로 인식되는가 하면⁸⁾, <애국가>에서도 유독 가을 하늘을 찬양한다. 이것은 아마도 다른 계절에는 없는 특별한 매력이 가을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4) 김상진, 『조선중기 연시조의 연구』, 민속원, 1997, 51~70쪽

5) 한편 ‘四時’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네 계절을 뜻하는 춘하추동을 떠올리지만 ‘사시’가 반드시 계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 년 사시를 뜻하는 춘하추동 이외에도, 한 달 사시를 의미하는 朔望弦晦, 하루 사시의 日晡暮夜 등도 모두 사시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들이 계열화 되며 ‘서로 간에 연계가 되어 춘하추동으로 대표된다. 예컨대 春朔旦, 夏望晝, 秋弦暮, 冬晦夜로 항목화 되고 각각의 항목은 서로의 은유체가 된다. 이는 노드롭 프라이의 개념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데 그에 의하면 봄-아침, 여름-낮, 가을-저녁, 겨울-밤과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N. Fry, *Fables of identity*,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3,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참조

6) 배해수, 「<가을> 명칭에 대한 고찰」, 『한남어문학』20집, 한남어문학회, 1995, 148쪽

7) 김창완, 「김현승 시 연구」(『한남어문학』30집, 한남어문학회, 2006, 108쪽)에서는 가을은 계절적으로 인간의 사유를 깊이 있게 만들며, 종교에 눈을 뜨는 계기도 가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며 가을의 속성을 설명한다.

8) 한국갤럽 창립 30주년 기념 설문조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40가지』(한국갤럽, 2004, 6.17, 13쪽)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남녀 총 1728명) 가운데 42% (남:45%, 여:39.1%)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로 가을을 꼽았다.

(www.gallup.co.kr/gallupdb/reportDownload.asp?seqNo=57)

지나치게 덥거나 춥지 않은 날씨로 말미암다 생활하기에 더 없이 알맞을 뿐 아니라, 높은 하늘과 단풍으로 물든 아름다운 산과 자연은 그 자체로 즐거움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에는 한 해 동안 농사지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수확의 계절이라는 사실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가을을 뜻하는 다양한 별칭 가운데 하나가 ‘수확의 계절’이라는 것이다. ‘가을’이란 용어는 끊어낸다든지 거둔다는 의미를 지닌 ‘갓다’에서 온 것으로 추측되어, 어원에서부터 수확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⁹⁾ 일상생활에 더없이 적절한 날씨이면서 수확의 계절이어서 강호의 삶이든 세속의 삶이든, 일 년 중 가장 풍요로운 계절이 가을이다. 그래서 시조에서도 가을의 풍요로움을 노래하곤 한다.

가을 打作 다흔 後에 洞內 모하 講信 홀 지
 金風憲의 메더지에 朴勸農의 되롱춤이로다
 座上이 李尊位는 拍掌大笑 ㅎ더라. (李鼎輔, 『瓶窩歌曲集』1063)

조선후기의 사대부 작가 李鼎輔(1693~1766)의 작품으로 농촌의 가을을 묘사하고 있다. 시조 전반에 걸쳐 가을걷이를 끝낸 후의 흥겨움이 물씬 묻어난다. 초장의 전제로 구체적인 시간은 가을 타작을 마친 후임을 알 수 있다. 농촌에서 타작을 마친 후라면 일 년 중 가장 풍성하고, 그래서 가장 즐거울 수 있는 축제의 시간이다. 講信이란 향약(鄉約)의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술을 마시며 信義를 새롭게 다지는 일을 뜻하는데, 타작을 마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니 말하자면 한 해의 농사에 대한 자축연인 셈이다. 風憲이나 勸農은 지방에서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하던 지방 관리이다.¹⁰⁾ 평소라면 일을 권면하고 다녔을 그들이지만, 여기에서만큼은 앞장서서 흥겹게 노래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춤도 춘다. 이렇듯 흥

9) 김상규, 『우리말에 빠지다』, 젠북, 2007, 167쪽

10) 風憲은 유향소에서 면이나 리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을 뜻하며, 勸農은 조선시대 지방의 坊이나 면에 속하여 농사를 장려하던 직책이나 그 사람을 일컫는다.

겨운 모습에 마을의 웃어른이 손뼉을 치며 크게 웃는다. 尊位란 직책의 일컬음은 아니지만, 한 면이나 마을에서 어른이 되는 사람이다.

이처럼 풍헌, 권농, 존위는 각기 다른 직분을 일컫지만 통상 근엄함이나 점잖음을 의미한다. 동일한 상징의 인물을 셋이나 한꺼번에 내세우며 그들이 흥에 겨워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은 추수를 끝낸 농촌의 가을이 얼마나 흥겨운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풍헌과 권농, 존위가 자신들의 무게를 벗어내고 노래를 부르고, 어깨춤을 추고, 존위가 박장대소를 한다는 것은 여타의 사람들이 기꺼이 그 행사에 동참하고 또 더욱 신명나게 즐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가을이 주는 물질의 풍요로움은 종종 정신의 풍요로움으로 이어져서 사람들은 가을을 더욱 아름다운 계절로 인식하기도 한다. 자연이 주는 즐거움은 봄도 가을 못지않다. 봄 또한 가을처럼 안온한 기후에 온갖 꽃들이 피어나서 산천을 화사하게 물들인다. 그럼에도 봄이 가을만큼 찬사를 받지 못하는 것은 봄은 화려하기는 하지만 풍요롭지는 않기 때문일 한다. 오히려 봄은 농사일로 분주하고 바빠지는 계절이다. 요컨대 봄부터 여름까지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계절이라면 가을은 그것을 수확하는 결실과 수확의 계절이 되고 있다.

한편 가을은 쇠락의 계절이기도 하다. 풍요로움과 쇠락은 상반되는 개념이지만 실제로 이들은 서로 맞닿아 있다. 이 같은 삶의 이치를 형상화한 경우는 황진이 시조 <청산리 벽계수>에서도 볼 수 있다. 碧溪水와 明月의 중의적 표현으로 널리 알려진 이 시조에서는 바다에 이르기 위해 부단히 흘러가는 벽계수가 목표를 이루는 순간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는 운명적인 삶을 주지로 삼고 있다. 이것은 비단 벽계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명월 또한 같은 운명체계 이다. 벽계수에게 쉬어 가라고 권유하는 이유를 ‘明月이 滿空山’함에 두고 있다는 것은 명월이 언제든지 만공산 한 것은 아님을 전제한다.¹¹⁾

11) 이와 관련된 <청산리 벽계수야>의 분석은 김상진, 「<청산리벽계수>와 <텐미니스>에 나타난 여성이미지 -시조와 대중가요의 관계 속에서-」, 『한국언어문화』27

이처럼 세상의 모든 物象은 벽계수나 명월과 같이 정점에 달하는 순간부터 쇠퇴하게 마련이고 가을의 풍요로움 또한 가을의 쇠락과 맞닿아 있다.¹²⁾ 가을을 풍요의 계절로 인식한 시조가 농촌에서의 수확을 테마로 삼았다면, 쇠락의 계절로 인식한 경우는 이별이나 그리움을 테마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梨花雨 흐쭉릴 제 울며 잡고 離別흔 님
 秋風 落葉에 저도 날 싱각는가
 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흐노매. (桂娘, 『樂學拾零』556)

위의 시조는 扶安의 名妓 桂娘(梅窓, 1573~1610)이 村隱 劉希慶(1545~1636)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조이다. 화자와 임이 이별한 시기는 꽃피는 봄이다. 배꽃이 비처럼 떨어지는 봄날, 눈물로 이별한 임을 화자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 새삼스레 그리워한다.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가 인식하는 가을은 앞서 이정보 시조에서의 화자가 느끼는 가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즉 이정보 시조에서의 가을이 농사를 마친 후 수확과 풍요의 가을이었다면 계랑의 시조에 등장하는 가을은 바람 불고 낙엽 지는 계절, 즉 쓸쓸함과 쇠락의 계절이 되고 있다. 화자는 가을이 지닌 여러 가지의 모습, 예컨대 황금빛 들판, 맑은 하늘, 단풍으로 풍광 등은 뒤로 한 채, ‘추풍 낙엽’만을 인식한다. 임과의 이별이라는 현실이 화자로 하여금 가을을 쇠락의 계절로 인식하게끔 한 것이다.

위에서 예시한 두 시조에서처럼 가을은 상반되는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지닌다. 시조에서 가을의 이중성을 노래하는 것은 가을이 지니고 있는 그 자체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인

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104~106쪽 참조.

12) 정일남, 「포은 정몽주 詩의 意象 연구」(『포은학연구』3집, 포은학회, 2009, 123쪽)에서 圃隱 鄭夢周(1337~1392)의 한시에 등장하는 ‘명월’이 시적 화자의 기분에 따라 悲秋가 될 수도 있고, 樂秋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본고와 유사한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

들은 가을의 이중성을 노래하게 된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肥沃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올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슴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金顯承, <가을의 기도>)¹³⁾

가을을 대표하는 시로 널리 알려진 金顯承(1913~1975)의 <가을의 기도> 가운데 둘째 연과 셋째 연이다.¹⁴⁾ 둘째 연에서 화자가 인식하는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소중한 한 사람을 택하고 또 그를 온전하게 사랑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은 온전한 사랑의 결실이다. 둘째 연의 모든 詩想은 ‘열매’에 집중되어 있다. 한 사람을 택하여 사랑하는 것의 궁극의 목적이자 살지고 기쁨진 시간을 가꾸는 이유는 모두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을 위함이다. 이렇게 둘째 연에서 화자는 가을을 풍요와 더불어 결실의 계절로 인식한다.

그러나 셋째 연에서의 가을은 둘째 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셋째 연의 화자는 ‘호올’ 있기를 기도한다. 이것은 둘째 연의 사랑이 ‘함께’ 있음으로써 형성되는 것과는 반대의 지향이 된다. 또 그 밖의 어휘들 또한

13) 김현승, 『김현승 시전집』, 민음사, 1985, 175쪽.

14) 김현승은 스스로가 ‘나만큼 가을에 대한 시를 많이 쓴 시인도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할 만큼 가을을 시화한 대표적 시인이다 (김현승, 「초가을」, 『김현승 전집2-산문』, 시인사, 1985, 413쪽, 윤석성, 「김현승 시의 ‘가을’ 연구」, 『동악어문론집』35집, 동악어문학회, 1999, 422쪽에서 재인용).

결실이나 비옥함과는 거리가 있다. 화자는 자신의 영혼과 마른 나뭇가지 위의 까마귀를 동일시한다. 굽이치는 바다, 마른 나뭇가지, 까마귀에서 환기되는 이미지는 모두 하강의 이미지로 가을을 쇠락의 계절로 인식하게 된다. 결합되는 어휘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는 바다는 ‘굽이치는’과 결합하여 역동적이면서도 불안정한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마른 나뭇가지는 양상함의 이미지와 함께 외로움과 고독을, 까마귀 또한 불길의 상징이라든지 높은 나뭇가지에 등지를 트는 속성을 지녀 다른 것과의 고립, 단절을 일컬어 외로움의 상징이 된다. 요컨대 화자의 영혼은 요동치는 불안의 바다와 같은 어려움이나 백함의 골짜기로 상징되는 빛나는 화려함을 거쳐 고독과 외로움의 등가물이다. 이처럼 셋째 연에서의 가을은 풍요와는 반대의 이미지를 표상 한다.

김현승 시에서 보이는 가을의 이중적인 모습은 독일의 대표적 시인 릴케(Rainer Maria Rilke, 1875~1926)의 시로 유명한 <가을날>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¹⁵⁾ “주여 때가 왔습니다”로 시작되는 <가을날>의 첫째 연에 등장하는 가을은 마지막 과일이 익어가는 풍요의 계절이지만, 둘째 연에서는 고독한 자가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가로수 길을 헤매는 방향의 계절이 되어 쇠락의 이미지를 형상화 한다. <가을날>의 첫째 연과 둘째 연에서 보이는 상반된 모습 또한 김현승의 시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을을 이중적 의미를 지닌 계절로 파악하는 것이라 하겠다.¹⁶⁾

15) 릴케는 우리나라 시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시인이다. 그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시인으로는 윤동주, 김현승, 김춘수 등을 꼽을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윤성근, 「한국 시의 릴케 수용」, 『한국어문학연구』50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8, 289~310쪽 참조). 그중에서도 일반 독자에게도 널리 알려진 릴케의 <가을날>과 김현승의 <가을날의 기도>는 그 정서가 흡사하다. 두 작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진순애, 「릴케의 <가을날>의 한국적 변용」(『우리말글』23집, 우리말글학회, 2001, 297~316쪽)과 김재혁, 「견고한 고독의 세계 : 릴케와 김현승」(『독일문학』84집, 한국독어독문학회, 2002, 168~191쪽) 참조.

16) 가을의 성격을 이중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는 두 작품이 맥을 함께한다. 하지만, 이것이 양자의 절대적인 동일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양자의 차이에 대하여 김재혁, 위의 논문, 187~188쪽에서는 김현승의 작품에서는 ‘특유의 고독에 집착’하였다고 설명한다.

비단 가을에 국한된 것은 아니겠지만 가을이라는 동일한 계절을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혹은 개인적인 정서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가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학양식인 시조에서 어떻게 정서적으로 표현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정서표현의 세 국면

가을의 성격이 단일한 것이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성향을 동시에 나타낸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정서적 표출 또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가을을 풍요와 수확의 계절로 인식한다면 그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밝고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 반면에 쇠락의 계절로 인식하게 되면 부정적이며 우울한 정서가 지배적일 것이다. 또 상황을 인식하고 정서를 표출하는 것은 언제나 일정한 것은 아니어서 동일한 상황이라도 그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정서표현을 정서의 분출과 응축, 승화의 세 국면으로 범주화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興으로 분출하기

가을을 노래한 일련의 시조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정서표현의 방식은 분출이다. 정서를 분출하는 중심 미감은 ‘興’이다.¹⁷⁾ 흥의 감정을 느끼고 이것을 밖으로 분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꼽을 수 있다. <漁父四時詞>는 ‘어부’를 시적화자로 삼아 세상을 벗어나 物外의 삶을 즐기는 어부의 興을 춘하추동으로 나누고, 각 계절을

17) 신은경, 『風流』, 보고사, 1999, 95쪽에 따르면 흥은 生의 밝은 측면으로 마음이 향했을 때 조성되는 미감으로 즐거움, 기쁨, 상쾌함과 같은 陽의 요소를 포함한다.

10수씩 노래한 연시조 이다. 全篇이 漁父가 세상을 떠나 江湖에 머물며 각 계절이 지나는 고유한 아름다움과 함께 그곳에서의 삶이 가져다주는 흥겨움을 노래한 작품이므로 사계절 모두 흥을 노래하지만, 화자는 그 가운데서도 가을이 으뜸이라고 추켜세운다.

- ① 物外에 조흔 일이 漁父 生涯 아니런가
 漁翁을 웃지 마라 그림다마 그렸더라
 두어라 四時興이 흥가지나 秋江이 으뜸이다.
 (尹善道, <漁父四時詞> 秋詞:1)

①은 <어부사시사>에서 가을을 노래한 10수 가운데 첫 연이다. 화자는 종장에서 사계절의 興이 한 가지로 즐겁지만 秋江이 으뜸이라고 하며 추사를 전개함에 있어 ‘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부사시사>는 총 40수 가운데 모두 9수에서 ‘흥’이 등장하는데,¹⁸⁾ 春詞, 夏詞, 冬詞는 각각 2수, 秋詞에는 3수에 걸쳐 등장한다. 사시의 흥 가운데 가을이 으뜸이라고 이미 전제했듯이, 실제의 노래에 있어서도 가을은 다른 계절보다 ‘흥’이란 어휘를 더 자주 언급하고 있다. 가을이 으뜸이라고 하는 이유는 ①에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다만 초장에서 物外의 좋은 일이 ‘어부 생애’라고 함으로써 가을의 흥이 세상에서의 榮辱이 아닌 물외에서의 생활이라는 점만 추론할 수 있다. 또 그런 생활을 하는 자신을 ‘웃지 말라’고 하는 주장의 진술로써, 자신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어 ‘추사’의 제2연에서 10연에 이르는 작품에서 가을의 흥겨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제2연에서 화자는 자신이 머무는 곳을 ‘水國’이라고 하며 그곳이 마치 理想鄉인 듯 발화한다. 이어 秋興이 으뜸인 첫째 이유로 ‘살찐 고기’를 노래한다. 3연에서는 白雲과 꽃나무, 바닷물이 밀려오고

18) 김홍규, 「<漁父四時詞>에서의 ‘興’의 性格」(『한국고전시가작품론』2, 집문당, 551~558쪽)에서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빠지는 경치를 노래하는 등 각 연마다 계절의 아름다움을 제시하며 흥을 이야기한다.¹⁹⁾ 그 중에서 제4연과 6연에서는 “기러기 썰는 밧기 못 보던 뵈 뵈는고야 / 낙시질도 흐려니와 醉흔 거시 이 흥이라 / 두어라 夕陽이 보으니 千山이 錦繡 |로다 (제4수)”, “넙 바람 고이 부니 들은 듯게 도라 왔다 / 暝色은 나아오디 淸興이 머리 있다 / 어인지 紅樹 淸江이 슬피지도 아네랴.(제6수)”라고 하며 ‘흥’을 문면에 직접 내세우며 추흥을 만끽한다.

가을을 노래하며 흥의 정서를 표출하는 것은 다음의 시조에서도 볼 수 있다.

② 秋江 붉근 들에 一葉舟 혼자 저어
낙대를 썰쳐드니 즈 든 白鷗 다 놀거다
어디서 一聲魚笛은 조차 흥을 돕느니.
(金光煜, <栗里遺曲> 9연, 진본청구영언 154)

③ 흰 이슬 서리 되니 ㄱ을히 느껴 있다
긴 들 黃雲이 흰 빗치 피거고야
아희야 비즌 술 걸러라 秋興 계워 흥노라.
(辛啓榮, <田園四時歌> 5연:秋, 『仙石遺稿』)

②는 金光煜(1580~1656)의 <栗里遺曲> 17수 가운데 제9연이다.²⁰⁾ <울리유곡>은 작자 김광욱이 관직에서 물러나 家系の 別墅가 있던 고양 행주의 울리에서 지는 것이다.²¹⁾ 秋江을 배경으로 노래한 위의 시조에서 화자는 가을 강, 밝은 달밤에 혼자 작은 배를 타고 있다. 달이 밝다는 것

19) 제2연 : 水國에 ㄱ을히 드니 고기마다 슬져 있다 / 萬頃 澄波에 슬꺨지 容與흥자 / 어즐흔 人世를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제3연 : 白雲이 이러 나니 나무 썩치 혼덕인다 / 밑물에 西湖 | 오 혈믈의 東湖 가자 아희야 白藏 紅蓼는 곳마다 景이로다

20) <울리유곡>은 『청구영언』(진본)에는 17수가 수록되어 있으나, 『해동가요』(주씨본)에는 14수만 수록되었다.

21) 김창원, 「조선후기 近畿 지역 강호시가의 지역성」, 『시조학논총』28집, 한국시조학회, 2008, 67쪽.

은 그만큼 밤이 깊기 때문인데, 깊은 밤 고요한 강가에서 낚싯대를 던지니 잠자던 흰 갈매기가 잠을 깬다. 일견 쓸쓸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화자는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긴다. 그러던 차에 한 가닥 고기잡이의 피리 소리가 들려오니 秋江에서의 흥겨움이 고조된다.

③은 辛啓榮(1577~1669)의 연시조 <田園四時歌> 10수 가운데 다섯째 수이다. <전원사시가>는 전원에서의 春夏秋冬을 각각 두 수씩 노래하고 마지막 두 수에서는 ‘除夕’이란 특정시간을 노래하면서 전형적인 사시가의 형식을 취한다.²²⁾ ③은 앞선 시조에서보다 가을의 시점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등장한다. 이슬이 서리가 되는 시기는 24절기 가운데 18번째 절기인 霜降으로, 양력 10월 23일 즈음이다. 중장에서 들판이 黃雲을 이루고 있음을 표현하고, 종장에서는 아희를 시켜 빛은 술을 거르라고 명령한다. 이러한 광경은 풍년을 이뤄 마을 잔치를 벌이려는 것이다. 작품에서 시간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초장에서 종장으로 이어짐에 따라 시간이 경과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중장이 수확 이전의 들판을 묘사했다면 종장은 중장의 광경을 보고 난 이후의 행동이다. 황금빛 물결로 가득한 들판을 보고 한껏 고조된 화자는 아희를 시켜 술을 빚으며 추흥을 만끽한다.

이상 세 편의 시조는 모두 가을을 시적 배경이나 주제로 삼는다. 이들 시조는 가을을 흥겨움의 계절로 인식하며, 그 정서를 밖으로 분출한다. 특히 이들 시조에서는 ‘興’이란 용어를 작품의 문면에 드러내며 그 흥겨움을 직접 분출하고 있다. 반면, 다음에 예시할 시조에서는 ‘흥’이란 용어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분위기로서 흥겨운 정서를 분출하게 된다.

22) 농촌, 강호, 전원은 실제적으로는 동일한 공간일 수 있으나 시대마다 인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강호나 전원, 또는 농촌으로 변별될 수 있다. 김홍규, 「16, 17세기 강호시조의 변천과 전가시조의 형성」, 『어문논집』35집, 안암어문학회, 1996, 217~242쪽. 이상원, 「17세기 시가사의 시각」, 『조선중기 시가사와 자연』, 태학사, 2002, 261~283쪽. 신영명, 「17세기 시조에 나타난 ‘전원’과 ‘전가’의 형상」, 위의 책, 285~303쪽. 권순희, 「田家時調의 미적 특질과 사적 전개 양상」, 고려대 박사논문, 2000. 등 참조.

④ 江湖에 𠵼이 드니 고기마다 슬져 있다
 小艇에 漁網 𠵼고 洞庭波로 도라 드니
 어디셔 술 실은 風月客은 날 못 츠즈 ㅎ느니.
 (작자미상, 『詩歌』(朴氏本) 369)

⑤ 𠵼희 곡석 보니 ㄷ흞도 ㄷ흞세고
 내 힘의 𠵼운 거시 머거도 마시로다
 이 𠵼기 千駟 萬鍾을 부러 무슴 ㅎ리오.
 (李徽逸, <田家八曲> 제4수:秋, 『存齋集』)

작자미상인 시조④는 孟思誠의 所作인 <江湖四時歌>의 제3연과 흡사하다. 초장은 <강호사시가>와 동일하게 시작하고 있으나 중장의 변화를 거쳐 종장을 달리하며 시적 상황을 <강호사시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즉 <강호사시가>가 ‘亦君恩이샷다’라고 하며 표면적으로는 사계절 아름다운 강호를 예찬하면서도 실제로는 聖恩을 찬양하며 악장적 분위기를 연출하였다면, ④는 술과 풍류객을 등장시키며 강호에서의 추흥을 예찬하는 것이 주지이다.²³⁾

‘살진 고기’라는 어휘를 등장시키며 가을을 풍요로움의 계절로 인식하는 ④의 초장은 <강호사시가>의 초장과 동일하다. 중장 또한 <강호사시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강호사시가>에서 단지 그물을 던져두는 것에 머물고 있다면, ④에서는 경치 좋기로 소문난 ‘洞庭湖’를 찾는다고 하여 가을의 정취를 즐기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중장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종장의 ‘술 실은 풍류객’으로 이어진다. 시조는 화자가 자신을 찾지 못하는 풍류객을 채근하는 것으로 詩想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화자와 풍류객이 함께 酒興을 즐겼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화자가 이미 풍류객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23) 사시가지계 연시조의 초기작으로 볼 수 있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제3수는 “江湖에 𠵼이 드니 고기마다 슬져 있다 / 小艇에 그물 시러 흘니 ㅼ여 더져 두고 / 이 몸이 消日희움도 亦君恩이샷다”라고 하며 강호의 가을을 노래하며 君恩을 찬탄한다. ③과 비교할 때 초장과 중장 첫구까지는 동일하며 중장 후반부터 차이를 보인다. 이어 종장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향하게 된다.

④가 강호에서의 가을과 그 흥겨운 분위기를 노래했다면 ⑤는 농촌의 가을과 그 흥겨운 분위기를 노래하고 있다. ⑤는 李徽逸(1619~1672)의 <田家八曲> 8수 가운데 4연으로 농사의 수고로움에서 얻는 즐거움을 노래한다.²⁴⁾ 가을 들판을 가득 채운 곡식을 바라보는 ⑤의 화자는 이내 뿌듯한 감격에 빠진다. 그것인 스스로의 힘으로 일구어낸 노동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먹어도 맛있다’고 한 중장의 진술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화자가 자기 것에 대해 가지는 애착이다. 요컨대 초장에서는 들판에 익어있는 곡식을 눈으로 보며 좋아하고, 중장에서는 그 곡식을 먹으며 또 한 번 감회에 빠지면서 농사에 대한 화자의 자부심과 애정을 표현한다. 종장에 이르러서는 지분 지족하는 화자의 만족감을 나타낸다. 千駟란 여러 필의 말이 끄는 수레이며 萬鍾이란 많은 봉록, 즉 녹봉을 뜻하는 것이니 천사만 좋은 부와 함께 대장부로서의 명예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화자는 그러한 부귀영화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자신의 현실에 만족한다.

이처럼 ④와 ⑤는 각각 강호의 가을과 농촌의 가을에서의 생활을 노래한다. 두 시조에서 흥겨움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풍류적이거나 즐거운 삶을 묘사함으로써 그 분위기로 흥겨움의 정서를 분출하고 있다.²⁵⁾

24) 이는 앞에서 보았던 이정보의 시조가 수확을 끝낸 후, 놀이의 흥겨움을 노래한 것과 반별된다. 두 시조가 보이는 이러한 차이는 각 시조의 작가가 향촌사족과 경화사족이란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와 관련해서는 신영명, 「시골로 내려온 서울, 서울로 오르지 못한 시골」, 『시조학논총』26집, 한국시조학회, 2007, 84~91쪽. 김창원, 앞의 논문, 118~122쪽. 이상원, 「이정보 시조 해석의 시각」, 『조선시대 시가사의 구도와 시각』, 보고사, 2004, 105~115쪽 등 참조). 각자가 처한 위치에 따라 즐거움이나 흥겨움을 유발하는 요소는 다르지만, 그들의 흥겨움이 근본적으로 ‘농사’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25) 류해춘, 「시조에 나타난 가을철 사대부의 여가활동」, 『시조학논총』23집, 한국시조학회, 2004, 49~69쪽 및 류해춘, 「사대부시조와 여가 활동의 양상」, 『국어교육연구』46, 국어교육학회, 2010, 232~235쪽에서도 ‘가을’에 주목하며 사대부시조에서 그들이 어떻게 며 사대만끽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이것은 일면 본고의 ‘흥’과도 상통할 수 있겠으나 각각 미감과 정서표현에 초점을 맞추고 여가활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 情恨으로 응축하기

가을을 노래한 시조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정서표현의 방식은 정서의 응축이다. 결실과 수확의 계절인 가을은 동시에 쇠락과 상실의 계절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을은 陰의 기운이 지배적이고, 그러한 정서를 밖으로 분출하기보다는 안으로 쌓아 담아두게 된다. 응축의 주된 정서적 미감은 ‘情恨’이다.²⁶⁾ 정한은 여성적이며 수동적·소극적인 정서로, 기녀시조나 연군시조와 같이 여성화자가 등장하는 시조에서 입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또는 그로 말미암은 외로움을 노래한 경우에 자주 등장한다.

⑥ 내 언제 無信하여 님을 언지 속엿관디
 月沈三更에 온 뜻이 전혀 업너
 秋風에 지는 님 소리야 낸들 어이 흐리오.
 (黃眞伊, 『樂學拾零』540)

⑦ 秋夜長 밤도 길다 남도 밤이 그리 긴가
 길기야 길너마는任이 업는 탓이로다
 우리도 언제나 조흔任 만나 긴 밤 짧게.
 (작자미상, 時調集(平洲本) 340)

⑥은 기녀시조의 대표 작가인 黃眞伊(朝鮮 中宗朝)의 시조로, 입을

26) 情恨은 情과 恨이 결합된 개념으로 한과는 변별된다. 신은경, 앞의 책, 237쪽에서는 한은 비애감, 상실감, 우울, 억울함 등을 연상하며 부정적 감정이 주조를 이룬다고 설명한다. 이에 반해 정한은 보다 정감적이다. 情恨을 하나의 용어로 사용한 것은 김동리(『문학과 인간』, 백민문화사, 1948)이다. 김소월의 시세계를 분석하며 ‘충족될 수도, 대리보상을 구할 수도 없는 영원한 상실감’을 정한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어 문순태(「한이란 무엇이나」, 『민족과 문학』1호, 민족과문학사, 1982)와 임현영(「한의 문학과 민중의식」, 『오늘의 책』, 한길사, 1984, 여름호)은 恨을 情恨과 怨恨으로 분류하며, 역시 김소월의 시를 분석함에 情恨을 사용하였다.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문학과 지성사, 1993, 53~67쪽)에서는 정한에 대한 이상과 같은 의견을 종합하여 ①좌절·상실 등에서 연유되는 무력한 자아에 대한 한탄의 연장선상에 표상되는 정서 ②여성편향적·퇴영적·과거 지향적인 정서 ③多情多恨의 정서이며 대타적 우호성을 기본 속성으로 함 ④밝고 건강한 일면과 어둡고 부정적인 면과 복합체를 이루는 정서라고 요약한다(본고에서의 정한 또한 이러한 기존의 개념에 의거한다).

그리워하는 여성화자의 탄식이 묻어난다. 화자가 입을 더욱 그리워하는 것은 임과의 이별이 오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초장에서는 그러한 억울함을 토로한다. 화자는 입을 속인 적이 없는데 입은 신뢰할 수 없음을 이유로 떠나갔으니 그 상실감은 더욱 크다. 깊은 밤이 되었음에도 입에 대한 마음을 단념하지 못하는 화자의 태도로 볼 때, 문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낮 동안도 입을 향한 마음은 여전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낮의 감정이 기대감이었다면 밤이 되며 그 기대감이 절망감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두 감정이 혼효되어 복잡한 감정이 되었을 것이다.

화자는 현재 자신이 맞이하고 있는 입의不在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에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입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다. 낮에도 오지 않던 입이 인적이 끊인三更에 울 리 없다는 사실을 판연히 알면서도 낙엽 지는 소리에 다시금 은근한 기대를 한다. 하지만 화자는 이러한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행동하기보다는 탄식하며 체념하고 만다. 그럼으로써 입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안으로 응축시키고 있다.

시조⑦은 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채 전하고 있어서 작품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종장 끝구가 생략된 채 詩想을 마무리한다든지, 두 명의 화자가 등장하여 대화체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조선 후기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 주된 테마는 입의 부재와 그로 인한 외로움 또는 슬픔이다. 두 명의 화자가 등장하여 문답형식으로 이루어진 ⑦의 초장에서 제1화자는 길게만 느껴지는 가을밤을 두고 타인의 의중을 묻는다. 중장은 제2화자의 발화로 초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제2화자는 가을밤의 상대적 길이에 대하여 논한다. 길기도 길지만 그보다는 입이 없기 때문에, 즉 혼자라는 외로움 때문에 더 길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종장에서의 발화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우리’라고 함으로써 두 화자를 아우름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한 목소리로 입을 만나 외로움에서 벗어나 고향 속내를 비친다.

그런데 ⑦의 두 화자 역시, 외로운 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보이지 않은 채 탄식하고 있다. 만남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나타낼 뿐 화자는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화자의 소극적인 모습은 종장의 ‘언제나’라는 용어로도 알 수 있다. 아무런 기약도 없이 막연한 바람만을 드러내고 있는 종장에서 비쳐지는 화자의 모습은 상당히 위축되고 소심해 보인다. 즉 임의 부재로 말미암은 자신의 마음을 情恨의 정서로써 안으로 응축시킨다.

가을에 대한 정서를 응축시키는 것은 戀君을 노래한 일련의 연군시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⑧ 머귀 님 디거야 알와다 그을힌 줄을
 細雨 淸江이 서느럽다 밤 기운이야
 千里의 님 니별하고 즘 못 드러 흐노라.
 (鄭澈, 『松江歌辭』星州本 66)

⑧은 松江 鄭澈(1536~1593)의 시조로 대표적인 연군시조 가운데 하나이다. 시조에서 가을을 상징하는 요소로 오동잎, 가는 비, 밤기운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하강의 이미지를 그려내어 가을을 쇠락의 계절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오동잎은 떨어지고, 비는 내리고, 밤기운은 서늘하게 화자를 감싼다. 오동잎이 떨어지고 나서야 화자는 비로소 가을임을 느낀다. 그렇게 맞이한 가을은 쓸쓸함의 계절이다. 가는 비가 내리는 맑은 강가의 밤기운은 시원하기보다는 서늘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임과의 이별은 더욱 큰 슬픔으로 다가온다. 화자는 자신과 임의 거리를 ‘千里’로 인식한다.

여기서의 천리란 현실적인 거리가 아닌 심리적이다. 그런데 임과의 거리를 멀게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자는 임과의 간격을 좁히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과의 이별 앞에서 화자가 취한 행동은 그저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전전긍긍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러한 화자의 모습은 소극적인 것을 넘어 무기력하게만 느껴진다.

한편 情恨의 정서가 연모의 정으로만 말미암는 것은 아니다. 연모나 연군처럼 흔하지는 않지만 思親이나 思友를 노래한 시조에서도 정한의 정서가 등장한다.

⑨ 秋月은 滿庭하야 산호 주렴 비치일 제

청천의 기러기 높이 떠 울고 가니 심황후 반겨 듯고 기력아 너 왔느냐
 소중낭 북해상에 편지
 전튼 기력이나 도화동 가거들랑 불상한 우리 부친전에 편지 한 장 전해
 다고
 문을 열고 내다보니 기력이 간 곳 업고 창냥한 우름 박게 별과 달만 받
 것으니 내의 심사 둘 곳 없다. (작자미상, 『時調』(關西本) 93)

시조 ⑨는 사설시조로써 思親을 노래한 경우이다. 이 시조는 판소리 <沈淸歌>의 내용을 시조로 노래한 것으로 <심청가>에서 심청이 황후가 된 후 부친을 생각하며 눈물짓는 대목에서 진양조로 노래하는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²⁷⁾ 앞 못 보는 부친을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될 만큼 효성심이 남달랐던 심청이기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황후가 되었지만 그 기쁨보다는 홀로 남겨진 부친 생각이 더욱 간절했다. 위의 시조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노래한 것이다.

심청의 그리움을 촉발시킨 것은 밝은 가을 달에 비친 산호주렴 이다. 산호주렴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겠지만 달빛과 어우러져 황홀함을 더한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움은 심청의 슬픔과 어우러져 애상미를 느끼게 한다. 심청의 슬픔에는 기러기도 한 몫 한다. 기러기의 상징은 다양해서 부

27) <심청가>의 대본에는 “추월은 만정하여 산호주렴 에 비치어 들고 실슬은 슬피울 어 나유 안에 흠어질 적어,청천의 외기러기난 월하에 높이떠서 뚜루뚜루뚜루뚜루 길록, 울음을 울고 나니, 심황후 기가 막혀, 오느냐 저 기력아 네 어디로 행하느냐? 소중낭 북해상 편지 전튼 기러기냐? 방으로 들어와 편지를 쓰라 할 저, 한 자 쓰고 눈물짓고, 두 자 쓰고 한숨을 지니, 글자가 모두 수목이 되고 언어가 도착이로구나. 편지 접어 손에 들고 건상을 바라보니, 기러기난 간 곳이 없고, 창망한 구름 밖에 별과 달만 밝었구나. 심황후가 기가 막혀, 편지를 던지고 울음을 운다.”라고 되어 있다(최동현·최혜진 교주, 『교주본 심청가』, <박동실바디 심청가> , 민속원, 2005, 88쪽).

부의 화합, 형제 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⑨에서는 소식을 전하는 傳令의 이미지로 등장하였다. 부친의 소식이 간절한 화자인 심청은 기러기를 통해 부친에게 소식을 전하고자 하지만, 기러기는 어느 틈에 사라져버렸다. 비록 만날 수는 없더라도 소식이라도 전하려던 희망은 기러기가 날아감에 따라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부친을 향한 그리움은 증폭된다.

또한 다음 시조는 임의 부재 상황을 맞이하였지만 임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인간 본연의 외로움을 노래한 경우인데, 여기서도 가을의 정한을 느낄 수 있다.

⑩가을 밤 칙 긴 적에 님 싱각이 더욱 깊다
머귀 성긴 비에 남은 肝腸 다 석노라
아마도 薄命은 人生은 너 혼진가 흐노라.
(金天澤, 『瓶窩歌曲集』 463)

시조 ⑩은 임의 존재를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애정을 노래한 여느 시조와 유사하다. 하지만 ⑩에서 화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임을 향한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혼자라는 외로움 때문이다. 말하자면 ⑩의 정서는 情恨에서 시작되어 ‘情’은 사라지고 ‘恨’만 남겨진 셈이다.²⁸⁾ 임을 그리는 마음은 기나 긴 가을밤을 맞아 한층 깊어진다. 오동잎에 떨어지는 빗소리는 화자의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만들면서 이미 녹아 없어지고 얼마 남지 않은 간장을 다 썩힌다. 이처럼 초장과 중장에서는 그리움의 정서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종장의 진술로써 화자의 그리움은 궁극적으로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토로하며 지배적인 감정을 그리움에서 외로움으로 바꾼다. 요컨대 화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薄命한 인생’이라는 것이다. 또 박명한 인생은 오직 자신뿐이기에 더욱 서럽고 외롭게 느껴진다.

이상의 시조에서 가을은 그 대상이 사랑하는 임이든, 군주이든, 혹은

28) 신은경, 앞의 책, 242~254쪽에서는 한은 비애감, 상실감, 우울, 억울함 등의 감정을 내포하며 소외와 억압이 근저에 자리한다고 설명한다.

가족이든 대상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그리움이나 외로움의 감정을 촉발시키는 계절이 되고 있다. 또한 여기서 촉발된 그리움이나 외로움은 정한의 미감으로 형상화되며 안으로 응축하는 성향을 지닌다. 또한 응축은 ‘정’보다 ‘한’의 속성에 기인한다. 한과 연결되는 서술어는 ‘쌓인다, 맺힌다’ 등으로, 이들은 안에 응고된 상태를 뜻한다.²⁹⁾ 거기에 정을 더함으로써 보다 가녀린 정서로 다가온다.

3. 無心으로 승화하기

가을에 대한 정서적 표현의 마지막은 ‘승화’이다. 승화란 자아의 방어기제 가운데 하나로,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욕구를 예술활동이나 종교활동과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대상으로 겨냥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³⁰⁾ 여기서의 주된 정서는 ‘無心’이다. 무심의 사전적 정의는 ‘감정이나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상황’을 뜻한다. 그러나 무심에는 ‘俗世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경지’란 또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본고에서의 무심은 그 두 번째 의미에 좀 더 가깝다. 즉 가을에 대한 정서를 분출하거나 응축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으로 승화하는 것이다.

⑪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츠노미라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미라
無心흔 들빛만 싯고 빈 빅 저어 오노미라.
(月山大君, 『瓶窩歌曲集』 593)

이 시조는 月山大君(1454~1488)의 所作이다. ⑪은 15세기의 작품으로 본격적인 강호시조가 창작되던 것보다는 이른 시기의 작품이지만 시적 분위기는 조선 중기의 강호시조와 흡사하다. 월산대군은 世祖의 손자이자 추존왕 德宗(1438~1457)의 맏아들이며 成宗의 친형이다. 왕족의 삶이 世

29) 위의 책, 238쪽.

30) 장 라플랑슈 · 장 베르트랑 퐁탈리스 공저, 『정신분석사전』, 임진수 옮김, 열린책들, 2005, 211~213쪽.

人들에겐 부러울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왕위에 오르지 못한 悔恨이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계보로 따진다면 그는 마땅히 왕이 되어야 했겠지만 그렇지 못했기에 그 아쉬움은 평생을 지배했을 수도 있다. 위의 시조는 그러한 작자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초장에서는 화자가 머무는 시간과 공간이 제시되었다. 가을날 밤, 차가운 강가가 그것이다. 이러한 초장의 상황은 당시에 화자가 처한 현실과도 같다. 그만큼 화자는 외롭고 쓸쓸했을 것이다. 낚시를 드리웠지만 고기가 물지 않는다는 중장은 화자의 행위를 표현한 것인데, 이 또한 왕위에 오르지 못한 그의 상황과 흡사하다. 즉 행위에 따른 결과를 획득하지 못함이다. 초장과 중장만을 봤을 때 ⑪에서 인식하는 가을은 쓸쓸함의 계절이고 그래서 일견 怨限이 서린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초·중장의 분위기는 종장으로 인해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종장에서 화자는 초·중장에서 느껴지던 좌절감이나 쓸쓸함과 같은 어떤 일체의 감정도 표현하지 않은 채 ‘無心’의 정서로써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승화시킨다. 즉 무심이란 화자가 처한 현실적인 아픔에 마음을 두지 않음으로써 초월적으로 벗어난 경지를 이르게 된다.

이것은 다음에 예시한 <고산구곡가> 8수와 또 다른 시조에서도 유사하게 표현된다.

⑫七曲은 어드미오 楓巖에 秋色 도타
清霜이 얹게 치니 絶壁이 錦繡 | 로다
寒巖에 혼자 안자서 집을 잇고 잇노라. (李珣, <高山九曲歌> 제8수)

⑬丹楓은 半만 붉고 시늬는 맑았는디
여홀에 그물타고 바회우회 누엇시니
아마도 事無閑身은 나썩인가 흐노라. (작자미상, 『歌曲源流』191)

시조 ⑫는 李珣의 <高山九曲歌> 가운데 한 수 이다. 황해도 해주의 高山을 배경으로 한 栗谷 李珣의 <고산구곡가>는 중국 宋의 유학자 朱熹의

(1130~1200) <武夷權歌>(일명 ‘武夷九曲歌’)를 효방하여 지은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무이도가>가 배를 타고 무이산 계곡을 유람하며 무이구곡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라면, <고산구곡가>는 고산의 아홉 구비를 시간질서에 따라 노래한 사시가계 연시조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고산구곡가>는 일년 사시인 춘하추동과 하루 사시인 단주모야가 교차되어 등장하면서도 전체를 일 년 사시, 혹은 하루 사시로의 파악이 가능하여 구성력이 돋보이는 작품이기도 하다.³¹⁾ ⑫는 그 가운데 여덟째 노래로 고산의 일곱째 구비를 노래한다.

화자는 그곳을 ‘楓巖’이라 이름하고, 秋色의 아름다움에 찬탄한다. 중장은 秋色의 구체적인 묘사이다. 단풍으로 물든 절벽은 마치 금으로 수를 놓은 것과 같고, 주변에는 맑은 서리가 열게 드리워져 있으니 말 그대로 금상첨화이다. 이어 종장에서는 그러한 광경을 차가운 바위[寒巖]에 홀로 앉아 집을 잊고 바라본다고 노래한다. 여기서 화자가 집을 잊고 앉아있다고 하여 가을 풍경에 매료된 자신의 모습을 그려낸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거의 공간을 지칭한다기보다는 ‘寒巖’과의 대비로써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즉 한암이 강호의 은유라면, 집은 세속의 은유이다. 요컨대 한암에 앉아서 집을 잊고 있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마음을 버리고 강호의 삶을 긍정하는 것이며, 바로 無心의 상황이다. ⑫가 무심의 상황인 것은 <고산구곡가> 제7연과의 관계로도 알 수 있다. 7연에서 화자는 “六曲은 어드미오 釣峽에 물이 넘다 / 나와 고기와 뉘이 더욱 즐기노고 / 黃昏에 낙딴를 메고 帶月歸를 흐노라”라고 노래한다.³²⁾ 고기잡이에 나갔으나 고기 대신 달빛만 싣고 빈 배로 돌아온다는 것이 월산대사 시조와 흡사하다. ‘무심’이란 용어를 등장시키지는 않았지만 고기잡이의 목적이 생존에 있지 않고 즐거움에 있다든지, 고깃배에 고기 대신

31) 김상진, 「<고산구곡가>의 구조와 의미고찰」, 『한양어문』8집, 한양대학교 한양어문학회, 1990, 61~74쪽 참조.

32) <고산구곡가> 제7연에 등장하는 시간은 황혼으로 하루 사시 가운데 저녁[暮]이다. 그런데 이것을 일년 사시로 환언하면 가을과 맞닿을 수 있다.

달빛만 싣고 오면서도 여전히 즐거워하는 마음에서 ‘무심’을 느낄 수 있다. 이렇듯 <고산구곡가> 7연과의 관계에서 볼 때, ⑫에서 집을 잇고 있는 마음 또한 무심의 경지임을 알 수 있다.

⑬은 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채 『歌曲源流』에 전하고 있는 시조이다. 시조에서 단풍을 노래한 경우는 대부분 흥겨움의 정서를 분출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³³⁾ 그것은 비단 수를 놓은 듯 온 산을 물들이는 단풍의 화려함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나 ⑬의 정서는 단풍을 소재로 삼은 시조의 일반과는 달리 한적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초장의 진솔로 볼 때 단풍은 아직 절정을 이룬 것은 아니라 물들어가는 과정이다. 즉 그만큼 화려함은 그만큼 덜하다. 맑은 시내 또한 화려함이 아닌 청아함을 느끼게 한다. 그런 가운데 여울에는 그물을 띄우고 화자는 바위 위에 누웠다. ⑫에서 바위를 두고 ‘寒巖’이라 일컬었지만, 가을철의 바위는 그 자체로 차가움을 이미 내포한다. 이러한 초장과 중장에서 느껴지는 가을은 풍요로움이나 쇠락과는 또 다른 정서를 느끼게 한다. 요컨대 가을의 상승적 분위기에 들떠 하지도 않고, 그런가하면 하강적 분위기에 슬퍼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중장에서 자신의 현재를 ‘事無閑身’이라고 하며 어떤 감정도 동요되지 않은 채 무심으로써 승화시킨다.

한편, 흥이 매우 단순하게 형성될 수 있는 미감이라면 정한은 그만큼 단순하지는 않다. 그래도 이 둘은 누구라도 보편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미감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하지만 무심을 위해서는 일종의 수양이 필요하다. 이것은 분출과 응축, 승화의 방법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분출과 응축이 정서를 표현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라면 승화는 보다 형이상학적이다. 그러므로 무심으로 승화시킨 시조는 작품 수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33) 예컨대 李世輔는 “단풍은 난만하고 황국은 반기로다 / 한 잔 먹고 또 먹으니 취안도 단풍이라 / 동즈야 저 부러라 나도 신선”(『風雅』358)이라 하고, 金壽長도 “丹楓은 軟紅이요, 黃菊은 純金이라 / 新稻酒 맛시 들고 錦銀魚膾 더 조히라 / 아희야 거문고 닉여라 自酌 自歌 흐리라.”(『瓶窩歌曲集』446)라고 하여 단풍과 함께 가을의 흥겨운 정취를 노래한다.

IV. 맺음말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동일한 행동이 입장에 따라 정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설명한다. 그가 제시한 것은 상황 자체는 고정적이지만 그것을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是非가 엇갈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³⁴⁾ 그런데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점이 아니라 일정 동안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움직임이 있게 된다. 따라서 가을의 성격은 이미 고정적이지 않다.

가을의 성격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며, 시조를 비롯한 동서고금의 시문학에서 가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먼저 주목하였다. 그것은 대략 두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하나는 결실과 수확의 계절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쇠락과 상실의 계절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전자는 상승의 이미지를, 후자는 하강의 이미지를 지향하며 반대되는 모습을 지니지만, 실제적으로는 서로 맞닿아 있게 된다. 즉 결실과 수확의 정점에 오르는 순간 쇠락과 상실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가을이 지닌 속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동서고금의 시문학에서 동일하게 포착되는 현상이다. 이어 그렇다면 이러한 가을에 대하여 시조는 어떻게 정서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시조에서 가을에 대한 정서표현은 분출하거나 응축하는가 하면 또 때로는 승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흥, 정한, 무심을 대표적인 미감으로 삼고 있어서 본고에서는 ‘흥으로 분출하기’ ‘정한으로 응축하기’ ‘무심으로 승화하기’의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가을의 정서를 흥으로 분출하는 일련의 시조들은 가을걷이의 흥겨움이

34) 대표적인 예로 ‘철로를 이탈한 전차’ 이야기가 있다. 위험에 처한 전차가 한 사람을 희생해서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의 문제를 제기하며 입장의 차이를 표명한다. 이처럼 정의란 어느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이창신 옮김, 김영사, 2010, 36~40쪽.

나 강호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가을을 결실의 계절로 인식하였다. 그런가 하면 정한으로 응축하는 시조들은 대상과의 이별로 말미암은 그리움이나 외로움의 정서를 노래한 것으로 쇠락하는 가을의 이미지와 맞물리게 된다. 반면, 무심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양자에 대하여 모두 초월적이다. 즉, 흥겨움이나 외로움의 감정 어떤 것에든 치우치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며 담담함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 가지의 정서 표현이 오직 가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세 가지가 조화되거나 강조됨으로써 가을의 성격을 나타낸다함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³⁵⁾

본고는 가을을 대상으로 그것의 성격이나 정서의 표현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하지만 이것을 확대시키면 세상의 모든 대상의 본질, 또는 그것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의 다양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본고에서는 그 대상을 가을로 삼고, 시조의 시각으로 조망하였을 뿐이다.

35) 류해춘, 「사대부 시조의 여가 활동의 양상」, 앞의 논문, 223~238쪽에서는 각 계절마다 자연을 인식하는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는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 계절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 유용성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 김현승, 『김현승시전집』, 민음사, 1985.
-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상·하), 1992.
- 진동혁, 『李世輔時調集』, 정음사, 1985.
- 朱熹, 『周易本義』, 북경대학출판사, 1992.
- Rilke, Rainer Maria, 김재혁 옮김, 『형상시집』, 책세상, 1994.
- 권순희, 「田家時調의 미적 특질과 사적 전개 양상」, 고려대 박사논문, 2000.
- 김상규, 『우리말에 빠지다』, 젠북, 2007.
- 김상진, 「〈고산구곡가〉의 구조와 의미고찰」, 『한양어문』8집, 한양대학교 한양어문학회, 1990, 61~81쪽.
- 김상진, 「〈청산리벽계수〉와 〈텐미니츠〉에 나타난 여성이미지 -시조와 대중가요의 관계 속에서-」, 『한국언어문화』27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185~214쪽.
- 김상진, 『조선중기 연시조의 연구』, 민속원, 1997.
- 김신중, 「한국 사시가의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1992.
- 김영철 외, 『한국시가의 재조명』, 형설출판사, 1988.
- 김재혁, 「견고한 고독의 세계 : 릴케와 김현승」, 『독일문학』84집, 한국독어독문학회, 2002, 168~191쪽.
- 김창완, 「김현승 시 연구」, 『한남어문학』30집, 한남어문학회, 2006, 107~123쪽.
- 김창원, 「조선후기 近畿 지역 강호시가의 지역성」, 『시조학논총』28집, 한국시조학회, 2008. 63~80쪽.
- 김흥규, 「〈漁父四時詞〉에서의 ‘興’의 성격」, 『한국고전시가작품론』2, 집

- 문당, 551~558쪽.
- 류해춘, 「사대부 시조와 여가 활동의 양상」, 『국어교육연구』46집, 국어교육학회, 2010, 219~244쪽.
- 류해춘, 「시조에 나타난 가을철 사대부의 여가활동」, 『시조학논총』23집, 한국시조학회, 2004, 49~69쪽.
- 신영명, 「17세기 시조에 나타난 ‘전원’과 ‘전가’의 형상」, 『조선중기 시가사와 자연』, 태학사, 2002, 285~303쪽.
- 신영명, 「시골로 내려온 서울, 서울로 오르지 못한 시골」, 『시조학논총』26집, 한국시조학회, 2007, 84~91쪽.
- 신은경, 『風流』, 보고사, 1999.
- 윤석성, 「김현승 시의 ‘가을’ 연구」, 『동악어문론집』35집, 동악어문학회, 1999, 415~443쪽.
- 윤성근, 「한국 시의 릴케 수용」, 『한국어문학연구』50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8, 289~310쪽.
- 이상원, 「17세기 시가사의 시각」, 『조선중기 시가사와 자연』, 태학사, 2002, 261~283쪽.
- 이상원, 「이정보 시조 해석의 시각」, 『조선시대 시가사의 구도와 시각』, 보고사, 2004, 103~128쪽.
- 정일남, 「포은 정몽주 詩의 意象 연구」, 『포은학연구』3집, 포은학회, 2009, 107~136쪽.
- 진순애, 「릴케의 <가을날>의 한국적 변용」, 『우리말글』23집, 우리말글학회, 2001, 297~316쪽.
-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3.
- 최동현·최혜진 교수, 『교주본 심청가』, <박동실바디 심청가>, 민속원, 2005.
- 마이클 샌델, 이창신 옮김,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 장 라플랑슈 · 장 베르트랑 폰탈리스 공저, 임진수 옮김, 『정신분석사전』, 열린책들, 2005.

N. Fry, *Fables of identity*,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3,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www.gallup.co.kr/gallupdb/reportDownload.asp?seqNo=57, 한국갤럽
창립 30주년 기념
설문조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40가지』, 2004. 6. 17.

투고일 : 2011년 6월 30일, 심사 : 2011년 7월 20일~ 8월 12일, 게재확정 : 8월 16일

<Abstract>

Appeared in the Autumn on Sijo , the Nature and Emotional expression

Kim. Sang-jean

This paper is the study of Sijo and autumn.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nature are closely. These relationship more is close from the cultivation society. So, our country from old days created Sasiga(四時歌). Sasiga means that Spring, summer, autumn and winter singing poet. This paper, especially in the autumn of the midst of the four seasons were noted. Because the autumn having the special character. Namely, autumn is 'season of harvest' and at the same time 'season of extinction'

The focus of this paper is the two. First, the autumn is on the nature of the identification. In other words, Sijo and from of literature all ages and countries is the how to recognize an autumn. As a result, the autumn of 'season of harvest' and 'season of extinction' were perceived to be contradictory. The second is Sijo emotional expressions about autumn. And this is the specific goal of this paper.

The emotional expression of the autumn when appears in Sijo, as the category with three. It is vent, condensation and sublimate. And to here, respectively exists on the sense of beauty. That is to say, merriment[興], sorrow[情恨], smoothable-mind[無心]. In the paper they were named as 'Vent of Merriment'. So I could understand that Sijo sure how to recognize and how to express emotions in the autumn.

Key-words : autumn, Sasiga, harvest, extinction, vent, condensation, sublimate, merriment, sorrow, smoothable-mind